

HDPE, LG- 호남- 현대 과점 불가피

3사 생산능력 81만톤으로 42% 차지 ... 수출둔화 및 원료가 상승 고전

국내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시장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3사의 HDPE 생산능력이 81만톤으로 증가해 시장의 42%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과점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HDPE 시장점유율 1위와 3위, 4위를 차지하던 대한유화, 한화석유화학 및 대림산업은 LG-호남-현대와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나머지 SK와 삼성종합화학도 원료인 에틸렌 가격의 상승과 수출시장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HDPE 시장은 2002년 Film용 수요가 전년대비 1000톤 감소한 반면, Blow용은 2만7000톤 증가해 Film용과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lm 시장위축은 환경문제로 인한 일회용 쇼핑백 사용규제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도 Film용 사용량은 감소하고 Blow용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HDPE 가격은 하반기에 ExxonMobil의 싱가포르 소재 Olefin 플랜트의 트러블로 아시아 지역의 에틸렌 및 올레핀 공급이 타이트해져 연말에 강세를 보였다.

타이트한 원료공급과 가격상승으로 다운스트림 생산기업들의 가격인상이 시도됐기 때문으로, 2002년 11월 HDPE 가격은 CFR FE Asia 기준 톤당 538달러에서 12월 559달러로 21달러 상승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중국의 낮은 재고율과 수요증가로 1월 가격이 617달러로 전월대비 58달러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HDPE 가격상승세를 타고 수요기업들의 재고비축을 위한 선구매도 가격상승에 일조했다.

그러나 HDPE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이라크 전쟁 및 국내외 경제현황 등을 감안해 생산량 조절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 생산신장률이 둔화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수출시장도 중국의 자급률 증가와 오일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수출 경쟁력 하락과 동남아의 중국수출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hemical Journal 2003/ 02/ 21 >